

사설

보상은 못할망정 과세라니

사람들에게 대한 불완전한 세금 징수로 불교계가 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불교재산에도 마구잡이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지금까지 누락돼 온 불교계의 토지 관련 세금이 약 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등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사찰토지는 법원의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종교활동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한다.

본래 종묘세와 토초세의 새로운 세금제도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양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이 제도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불교재산에도 마구잡이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본래목적에 벗어나 처박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정권의 부당한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사찰토지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이다. 두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찰토지는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이다. 역경과 도제양성 포교와 수행을 위해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불교재산이다. 특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존 유지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이러한 역사성과 특수성이 더욱 강하다.

불교재산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후 160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의 진전에 맞춰 등 돌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삼보정재이며 민족문화유산이다.

둘째, 이 제도의 재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종교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찰토지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찰토지는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다. 또한 취득

얼린 마당

막바지 이른 선학원문제

조계종은 중회와 총무원이 함께 '조계종 선학 법안대책위원회'를 구성, 종단과 얼어 저거는 법인들의 귀속과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선학원에 대해서 정관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선학원은 재단법인에 참여한 재산은 공적재산임에도 종단이 사실상 법인소속

사안에 동일하게 기준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학원은 특히 조계종에서 법인관리법을 만들고 법인 임원들에 대한 정제가 있을 시에는 조계종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까지 하고 있다. 선학원의 탈종단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편집자 주

정우 (스님·조계종선학법안대책위원장)

70~80년대 어려운 시대적 여건속에 종단이 많은 진통을 겪을 때 종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종도들의 대피처로서 사람들이 선학원에 많이 등록을 했다. 하지만 종단은 여러가지 우려속에도 불구하고 남로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개혁봉사 이후

선학원의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학원 소속 절을 빼앗으려 한다거나 선학원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뜻을 뜻이 밝혀지는 것과 조계종 종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관상 본종의 관장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원의 재산상의 권리는 일체의 중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도 주지 않고 있다. 그 도제

특수성 빙자 탈종단화 추진 '어불성설' 독자성·자율인정 특별교구화로 귀속

로는 종단행정이 공개화·전문화·합리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종헌정비로 특종권 사설사찰의 재산권과 향건주 해운대로 이사장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종단에서는 수년전부터 선학원이 조계종과 나뉘어 가야 함을 여러번 강조하고 종회 차원의 특유까지 구성했다.

선학원이 원한다면 향후 선학원의 독자성과 자율화를 위한 특별교구화도 인정할 것이며 분원장의 임원은 지금까지 해운대로 이사장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시라 조계종 종헌 9 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단은 정관상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찰의 재산상의 권리와

법진 (스님·선학원 사무이사)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체의 한국불교 왜곡과 작업에 한가지 하고 민족 불교의 선택을 중시하고자 애국 선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 한국불교의 산실이며 해방 이후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불교정화의 구실이었으며 현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다.

종단에서 재단에 가하는 압박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기

'분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분종'이라 함은 이념을 달리하는 새로운 종을 형성하고자 애국 선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 한국불교의 산실이며 해방 이후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불교정화의 구실이었으며 현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다.

종단에서 재단에 가하는 압박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기



육과 강원교육을 차단한다는 것은 승려가 되는 길과 승려를 승려답게 만드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니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난 조치이다.

'종도권리제한' 등에 대한 자구책 모색 종단 '분종' 용어사용 갈등조장 말아야

서는 종헌을 개정하며 각 법인의 종도들의 권리제한 조항을 삽입하여 선학원을 비롯한 여타 법인소속 스님들의 종도로서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도제에 대한 행자 및 강원교육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재단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 결의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종단의 압박에 대하여 재단측에서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일컬어 종단에서는

때문에 재단소속 스님들과 그 도제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재단에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단에서 분종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며 갈등 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종단이 여러 법인에 가한 심각한 조치들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각 법인소속 종도들의 권리 제한 및 도제에 대한 행자

시론

개혁·청산도 민중의 뜻으로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권교체는 곧 개혁을 의미해 왔다. 근세이후만 해도 대원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목표는 한결같이 구악 청산과 민심 쇄신이었다. 특히 대원군의 개혁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세도정치의 추방, 세제의 시정, 서원의 철폐 등... 하지만 한결같이 이들은 망명, 암살, 형무소행 등의 불행에 맞서고 있다. 선학원의 탈종단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편집자 주

부패척결 주역 '정보화'

대한민국의 영광은 귀족자녀들이 지난 '전쟁'에서는 일선에 선다는 정신으로 성취했다. 지난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조종하며 여러차례 사선을 넘었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6·25 당시 일선에서 죽은 병사의 대부분은 소위 '해바지 부대'로, 권력도 돈도 없는 계층이었다.

5·16 이후 한국 최고 엘리트인 서울대 교수의 병역 해당자격 기피자가 60% 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귀족정신이 없는 지도자는 마적 두목이나 다름없다. 실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군사정권을 일으킨 무리들이 어김없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귀족정신은 없고 싸늘이적인 사고가 만연한 결과 한국병은 증폭돼온 셈이다. 싸늘이 권력독점 세도정치를 자랑하는 이도령적인 사고는 항상 같은 되풀이가 따른다. 권력자의 이도령적 사고가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모두가 '말은 안으로 굽는다'는 고후한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실상은 남자에게는 이도령을 여자에게는 신사임당을 이상으로 삼게 한다. 신사임당의 인품학식은 매우 높지만 대저주 안반의 무남독녀에 남편은 벼슬아치, 아들은 조선왕조 500년간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이

오늘날의 상황에 비해 때 이도령적 가치관은 매우 부정적이다.

요즘의 비리·부패 척결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주역은 정보화이다. 이제 어떤 권력도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 인류는 5000년전 도시문명이 시작된 이후 계속 소수 지배자에 의한 통치사회에 있었지만, 왕국, 독재,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체제의 이름은 여러차례 변했으나 한결같이 소수 지배층이 통치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정보의 범람으로 처음으로 통치사회에서 자율사회로 넘어왔다. 우리는 스스로의 원형을 인식하여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도록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체험하는 혁명적 상황이다. 지배층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될 것이고 정치는 소수 엘리트만의 독점물도 아니다. 권력·정보 조작만으로 국민을 기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리성 자율성에 기반을 둔 민중의 적극적인 개혁참여 의지만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탐관오리 싸늘이' 역사

'이도령은 정원급제했다'는 말에는 권력자형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 '고향에 내려갔다'는 금의환향이기도 하지만 지역차별을 엿볼 수 있다.

'충양이부터 구했다'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친인척 애호사상을 읽을 수 있다.

'변사또를 시원스럽게 처리했다'는 결국 싸늘이를 말한다. 이도령은 싸늘이로 개혁했으나 그 후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마도 변사또처럼 탐관오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5·16군사혁명 당시 소장 장교들은 장군들을 '똥벌'이라고 했다. 자기들이야말로 4년제의 진정장 장교이고 1세대 2세대 '똥벌'들을 싸늘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벌인 이들 정규 사관학교 출신이 오히려 '똥벌'이 돼 버렸다.

요즘 TK라는 말이 사라지더니 PK란

현대만평

진작에 읽었으면...

“암·종종·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 속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 이제, 바라밀속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습만민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속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바라밀속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효만을 원하여 약의 과용으로 사용하고 약의 생리적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약효의 과용과 고통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속뜸기를 원한다.

약효가 다면서 발생하는 약효의 과용과 약효의 과용이 합쳐져서 속뜸기의 작용으로 30대 원자의 경계속으로 생지하고 스며들게 하여 50%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종과 시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보이는 약효는 황갈, 황갈, 황갈을 하는 인체조직은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약효치료의 병행하여 복용하는 영향을 얻을 수 있다.

바라밀속뜸기 보급사업 강령서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바라밀건강연구회 원장
- 100년전 불교정신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 중인
- 다년간 수련을 요하며 수련과 정의를 하고 있음

속뜸기 내용

- 1) 바라밀 속뜸기를 볼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강화약 약 2개 포함 포함)
- 2) 속뜸기 구입세 반영권
- 3) 속뜸기 한세트에 인가증이 사용

함 들어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치기위해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속뜸기

● 사찰에서 요청 시 순회강의도 배드며 신도들에게 스님에게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인사 스님을 찾아보고 보급방법 등을 논의드리겠습니다. (보급료 미포함) (보급료 미포함)

바라밀 속뜸기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종통,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암,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자궁,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전신,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쇠약, 경년기장애, 기비, 주근깨, 여드름, 배설물,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구입문의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및 상담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포교) 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 (0342) 706-3060